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9월 6일(금) (10:0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무 단장(2110-4500), 조수정 과장(2110-4461)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실질적 자유화수준 합의, 농수산 등 민감산업 보호기틀 마련-

□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2013. 9. 3.(화)~5(목)간 중국**(웨이팡)**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

* 1차 협상('12.5, 베이징), 2차 협상('12.7, 제주도), 3차 협상('12.8, 웨이하이), 4차 협상('12.10, 경주), 5차 협상('13.4 하얼빈), 6차 협상('13.7, 부산), 7차 협상('13.9, 웨이팡)

○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

□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① 상품분야, ② 서비스·투자분야, ③ 규범분야, ④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음

① **(상품분야)**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음

* 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 합의

-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

-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② **(서비스·투자분야)**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음

③ **(규범분야)**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하였음

<규범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 **지재권 :** 보호수준 및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행정절차 개선, 협력 확대 등
- **경쟁 :** 투명성 제고, 당국간 협력 등
- **투명성 :** 정보제공, 행정절차보장, 사법·준사법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 **환경 :** 환경보호 의무, 환경협력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④ **(경제협력분야)** 양측은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음

<경제협력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 **정부조달** : 정보교환, 양국 정부조달협력 관련사항 및 후속협상 개최 문제
- **산업협력** : 에너지·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 **농수산협력** :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분야 협력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의 2단계 협상 논의근거 마련

□ 금번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협상결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됨

○ 또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함

○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그 외에도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 또한 정부는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첨부 : 한·중 FTA 참고자료

I 추진 경과

❑ 2005.7월~2006.9월 민간공동연구 진행

❑ 2007.3월~20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2010.9월~2012.4월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 민감 분야 보호를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1단계:모델리티/2단계:협정문 및 시장접근) 채택

❑ 2012.1.9. 한·중 정상회담(베이징)에서 협상 개시 합의 후, 국내 절차 추진

※ 공청회(2.24),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4.1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4.23)

❑ 2012.5.2.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계기, "한·중 FTA 협상 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 발표

❑ 2012.5월~2013.4월간 6차례* 협상을 개최, 상품을 비롯한 각 분야 모델리티 협의

※ 1차(2012.5.14, 베이징), 2차(2012.7.3~5, 제주), 3차(2012.8.22~24, 웨이하이), 4차(2012.10.30~11.1, 경주), 5차(2013.4.26~28, 하얼빈), 6차(2013.7.2~4, 부산)

※ 2013.6.27.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계기,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 1단계 협상 마무리를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

❑ 2013.9.3~5. 개최된 제7차 협상(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1단계 모델리티 협상 마무리

Ⅱ 한중 교역 현황

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년 도	한 국	중 국	비 고
국내총생산(명목GDP, 억불)		2012	11,292	82,270	중국, 한국의 7.3배 중국(세계 2위), 한국(세계 15위)
1인당 GDP(명목, 불)			23,112.9	6,075.9	중국(세계 88위), 한국(세계 34위)
경제성장률(실질, %)			2.0	7.8	-
인 구		2012	5,001만 명	13.5억 명	중국, 한국의 27배 중국(세계 1위), 한국(세계 26위) ☆ 전세계 인구: 68.6억 명
국토면적(km^2)		2011	99,720	9,596,961	중국, 한국의 96배 중국(세계 4위), 한국(세계 109위)
對세계 상품 교역 (억불)	총액	2012	10,675	38,675	중국, 한국의 3.6배
	수출		5,479	20,501	중국, 한국의 3.7배
	수입		5,196	18,173	중국, 한국의 3.5배
	수지		283	2,328	중국, 한국의 8.2배
對세계 서비스 교 역 (억불)	총액	2012	2,190	4,706	중국, 한국의 2.1배
	수출		1,109	1,905	중국, 한국의 1.7배
	수입		1,082	2,801	중국, 한국의 2.6배
	수지		27	△897	-

* 한국과 중국의 對세계 서비스교역액 출처는 각각 한국은행(잠정치)과 중국상무부
*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중국상무부

2 교역 현황

□ 한-중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증가율(%))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세계	對中	중국 수출 비중	對세계	對中	중국 수입 비중	對세계	對中
2001	1,504(-12.7)	182(-1.4)	12.1%	1,411(-12.1)	133(3.9)	9.4%	93	49
2002	1,625(8.0)	238(30.6)	14.6%	1,521(7.8)	174(30.8)	11.4%	103	64
2003	1,938(19.3)	351(47.8)	18.1%	1,788(17.6)	219(25.9)	12.3%	150	132
2004	2,538(31.0)	498(41.7)	19.6%	2,245(25.5)	296(35.0)	13.2%	294	202
2005	2,844(12.0)	619(24.4)	21.8%	2,612(16.4)	386(30.6)	14.8%	232	233
2006	3,255(14.4)	695(12.2)	21.3%	3,094(18.4)	486(25.6)	15.7%	161	209
2007	3,715(14.1)	820(18.0)	22.1%	3,568(15.3)	630(29.8)	17.7%	146	190
2008	4,220(13.6)	914(11.5)	21.7%	4,353(22.0)	769(22.1)	17.7%	-133	145
2009	3,635(-13.9)	867(-5.1)	23.9%	3,231(-25.8)	542(-29.5)	16.8%	404	325
2010	4,664(28.3)	1,168(34.8)	25.1%	4,252(31.6)	716(31.9)	16.8%	412	453
2011	5,552(19.0)	1,342(14.9)	24.2%	5,244(23.3)	864(20.8)	16.5%	308	478
2012	5,478(-1.3)	1,343(14.8)	24.5%	5,195(-0.9)	808(-6.5)	15.5%	283	53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중국 교역량 비중

(단위 : 억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교역량(A)	5,456.6	6,348.5	7,283.3	8,572.8	6,866.2	8,916.0	10,796.3	10,674.5
대중국 교역량(B)	1,005.6	1,180.2	1,450.1	1,683.2	1,409.5	1,884.1	2,206.2	2,152
비중(B/A)	18.4%	18.6%	19.9%	19.6%	20.5%	21.1%	20.4%	20.2%

□ 한·중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역액	18,110.4	23,959.4	18,445.3	24,401.1	26,154.0	27,946.2
서비스지급	8,967.9	10,689.5	8,669.0	10,651.0	12,038.9	12,066.7
서비스수입	9,142.5	13,269.9	9,776.3	13,750.1	14,115.1	15,879.5
서비스수지	174.6	2,580.4	1,107.3	3,099.1	2,076.2	3,812.8

* 자료: 한국은행

□ 한·중 투자 교류 현황

(단위: 억불, %, 신고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기	누계
중 → 한 (비중*)	0.5 (0.8)	11.6 (9.1)	0.7 (0.6)	0.4 (0.3)	3.8 (3.7)	3.4 (2.9)	1.6 (1.4)	4.1 (3.2)	6.5 (4.8)	14.5 (4.5)	1.1 (1.6)	73.5 (2.4)
한 → 중 (비중*)	29.5 (44.9)	37.6 (40.6)	37.0 (37.8)	46.0 (23.5)	73.3 (24.1)	49.1 (13.2)	27.6 (8.8)	44.2 (12.7)	48.8 (10.8)	64.8 (27.7)	8.6 (12.0)	588.1 (17.3)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 '중→한' 비중은 전세계의 對한국 투자액() 대비 중국의 투자액 비중. '한→중' 비중은 우리나라의 對세계 투자액() 대비 對중국 투자액 비중

□ 한·중간 인적교류 현황(일시입국 비자발급)

(단위:만명, ( )는 증가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방한 중국인	90 (26.3)	107 (19.2)	116.8 (9.3)	134.2 (14.9)	187.5 (39.7)	222.0 (18.4)	283.7 (27.8)
방중 한국인	392 (17.6)	478 (21.8)	396 (△17.2)	319.8 (△19.2)	407.6 (27.5)	418.5 (2.7)	378.9 (2.7)

* 한·중 양국간 운항편수는 52개 노선, 주 837회 상회(부정기선 제외)
* 자료: 한국관광공사·중국국가여유국(旅遊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조수정과장(☎ 02-2110-4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